

JDC 실적 악화에도 연봉·성과급 상승세

기관장·임원 연봉 5년간 1700만~3000만원씩 올라 지난해 당기순이익 27% 감소·수천억대 소송에도 성과급도 1000여만원씩 증가... 도민 박탈감 우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기관장·임원 연봉이 실적 악화에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JDC 기관장의 성과급 포함 연봉은 2014년 1억 9534만원에서 지난해 2억2404만원으로, 5년간 약 3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2014년 8072

만원에서 지난해 9316만원으로 늘었다.

상임감사 연봉의 경우 2014년 1억 4102만원에서 지난해 1억6792만원으로, 지난 5년간 17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중 경영평가 성과급은 2014년 4933만원에서 지난해 6321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살펴보면, JDC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2억3304만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2억2461만원)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상임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1억9137만원), 한국감정원(1억 7704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 6988만원)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반면 JDC 실적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도민에게 정서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JDC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54억원으로, 전년(1718억원)과 비교해 464억원(27.0%) 줄었다. 영업이익도 2017년

1934억원에서 지난해 1771억원으로 163억원(8.4%)이 감소했다.

게다가 JDC는 수천억원 단위의 법적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피소된 사건을 보면 버자아제주리조트와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총 5건을 진행, 소송가액만 3673억원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등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 등의 성과급은 전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다"며 "올해 성과급은 지난해 평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태풍 '다나스' 피해 복구에 최선을"

문 대통령, 신속 조치 주문 "제주 등 남부지역 피해 커" 여당도 피해복구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 복구와 신속한 구호에 정부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열고 "태풍 '다나스'가 일찍 소멸돼 다행이지만 강풍과 폭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속 구호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도 태풍 '다나스' 피해 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태풍 '다나스'는 한반도 상륙과 동시에

소멸했지만, 이틀간 물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제주·부산·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1명이 부상하고 이재민이 9명 발생했으며, 30동의 주택과 농경지 2454ha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은 태풍 '다나스' 피해 복구를 비롯한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현재 태풍 피해지역 복구가 한창이지만, 침수와 토사유출이 늘고 있어 추가 안전사고도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남부 지역에 태풍이 와서 재해를 많이 입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복구

하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제주시는 어린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 공간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31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그네, 조합놀이대, 시소 등 놀이시설이며 균열, 훼손, 조임상태, 도색, 부식여부와 바닥 충격흡수(포설 고무칩)상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정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즉각 기동 보수반을 투입해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 고대르기자



중복엔 삼계탕 절기상 중복인 22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관광시설표지·음수대 제주에 맞게 통일된다

도, 표준디자인 개발 착수 지역특성 부합 방안 모색

게시판·통합형지주 등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한다.

제주시는 22일 오후 도청 한라관에서 2019년 제주도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디자인다가 말

으며, 수행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표지와 음용시설의 표준디자인 개발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제주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활용했지만 제대로 반영·보급이 어려웠다. 각 부서별로 신속집행 및 예산 문제 등은 물론, 당시 공공디자인 심의라는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 계획 활용에 대한 강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심의는 지난 2017년에서야 처음 시행됐다.

또 해안바람으로 금속 시설물이

부식이 이뤄지는데다, 디자인 매뉴얼 부재와 섬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재료 단가 상승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제주도는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법을 기반으로 표준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확보, 연차별 로드맵 마련에 돌입했다.

올해 주요 표준디자인 개발은 ▷관광시설 안내사인 ▷정소지시 안내사인 ▷연립사인 ▷홍보사인 ▷벽보게시판 ▷통합형 지주 ▷음수대 등이 대상이다. 관광시설 안내사는 제주를 상징하는 현무암의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 상징으로, 홍보사인은 자연재료와 가공 최소화

를 통해 서정적 경관과 조화로운 사인 디자인으로 검토되고 있다.

용역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권역을 ▷시가지와 행정기관이 밀집한 '도심권역'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악형태로 이뤄진 '산간권역' ▷남해를 중심으로 수변문화관광 및 생태보존 권역인 '해안권역'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권역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도별로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디자인의 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디자인을 실행하고 확산하는 내용으로 검토된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여야 합의 불발... 7월 임시국회 불투명

상임위는 정상 가동될 듯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원회는 국회 소집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산적한 서류 법안들의 처리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폭탄 사건 국정조사를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다만,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는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법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6월 국회기 본선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격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면서 "상임위는 국회 입회와 상관없이 가동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차입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 가정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의 최대 8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정기에탁금 "특판"

제16대 이사장 취임 기념

3.2%

□ 예치기간 : 1년 ~ 3년
 □ 언제까지 : 한도 소진시 까지
 □ 어디에서 : 개인택시새마을금고 (제주시 남녕로 4길 43)
 □ 문의전화 : 064)747-2483 ~ 5

MG새마을금고 개인택시

제2기 오름 아카데미

오름을 알면 제주가 보인다

구분	강의기간	요일	강의시간	모집정원	교육장소
오름아카데미	2019. 8. 2~ 9. 6 (6주 12회 17강)	매주 금/ 이문교육, 토/ 현장탐방	09:00~13:00	30명	한라수목원 생태학습관

차수	날짜	요일	시간	강의 내용	강사
1	8. 2	금	09:30-11:00 11:10-12:40	개강식 / 제주의 보물, 오름 제주 역사의 이해	김천석 본회대표 이영권 제주역사교육연구소장
2	8. 3	토	09:00-13:00	육상화산 분석구 현장탐방 정물오름, 당오름	김천석 본회대표
3	8. 9	금	09:30-11:00 11:10-12:40	오름과 바람이 만든 제주 설화 화산섬 제주의 탄생과 신비	김순이 시인 윤성호 부산대학교수, 화산학
4	8. 10	토	09:00-13:00	수성화산 응회구 현장탐방 당산봉, 수월봉	김천석 본회대표
5	8. 16	금	09:30-11:00 11:10-12:40	오름과 제주인의 정체성 오름과 화산의 이해	오창홍 사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소장 안용순 세계유산본부, 지질학
6	8. 17	토	09:00-13:00	역사의 상흔, 오름은 알고 있다~ 첫알오름, 절물오름(송악산)	김천석 본회대표
7	8. 23	금	09:30-11:00 11:10-12:40	오름에서 만나는 제주의 들문화 오름의 나무 이야기	김영홍 제주문화연구소장 김태영 『한국의 나무』 저자
8	8. 24	토	09:00-13:00	오름에서 만나는 나무를 쫓아오름, 죽은노고메	김태영 『한국의 나무』 저자
9	8. 30	금	09:30-11:00 11:10-12:40	오름에 숨겨진 제주인의 삶 오름의 들꽃 이야기	김천석 본회대표 윤연순 생태전문가/들꽃 전문강사
10	8. 31	토	09:00-13:00	오름에서 만나는 들꽃 한라생태숲, 개오리오름	윤연순 생태전문가/들꽃 전문강사
11	9. 6	금	14:00-15:50 16:00-17:50	오름에서 돌아보는 환경철학 웃음으로 여는 행복찬 세상	윤용택 제주대학교수 이양국 제주웃음치료사
12	9. 6	금	18:00-20:00	종강식 / 오름 페스티벌 FESTA	제주문화공간 바람이 머무는 숲

■ 참가신청 : 카페 - 댓글 · 입금 선착순, 전화 - 오송희 사무국장 010-2936-3846

■ 교육비 : 농협 351-0493-3082-53 (제주문화공간) 20만원/인

특 · 우리 단체 명의의 수수료 수역단, 70% 이상 출석자에 한함
 · 교재 지급, 기념품 증정, 간식 제공
 · 현장 탐방 가는 날에는 점심 제공 / 대형버스 운행
 · 수료자는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제주문화공간 바람이 머무는 숲 사무국장 오송희 / ☎ 010-2936-3846